

#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의도: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김태경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 국 문 요 약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학생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창업가를 육성하려는 교육 목표를 세우고 대학들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현재까지 건설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택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수강하는 관행을 채택하기보다는 전체 대학 신입생의 필수 교양으로 과목을 수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 교육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넓혀 4년제 대학 입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 실시가 창업 의도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기업가 정신 교육의 수강생들이 느끼는 셀프-리더십과 자기 효능감과 기업가 정신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기업가 정신 교육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창업 동아리 참여의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약 2,500명의 신입생이 수강하는 기업가 정신 교육 과목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업가 정신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이 느끼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의 성과는 창업 의지를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동아리 활동이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 교육과 관련하여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창업 동아리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여 기존 연구의 이해를 넓혔다는 점도 중요하다.

핵심주제어: 기업가 정신, 창업 실패 두려움, 창업 의도, 창업 교육

## 1. 서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재단”의 『2017 기업가정신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청년 창업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에 대한 예비 창업자 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점에서 해당 조사 결과는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의도 그리고 창업 실패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또한 정부는 “K-Startup” 포털을 통해 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시설과 공간 및 정책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창업 교육에 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창업교육 체계를 구축하는데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며 창업교육 자체에 관한 노력은 대부분 대학의 자체 노력에 의존한다. 창업교육은 특정 전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일반교양으로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고 대학의 저학년 수준에서 보다 많은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추는 일이 특정 전공 능력을 함양하는 일과는 관련성이 낮고 창업 기회 역시 학업을 수행

하는 중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교육이 교양과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저학년부터 적극적으로 창업교육에 관한 내용을 학생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적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의 기업가 정신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기업가 정신 교육의 내용과 품질이 대학 간 차별화의 주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업가 정신 교육의 세부 내용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비교적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가 정신 교육은 창업 의도를 구체화하는 일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업 의도는 창업 과정을 이끄는 핵심 개념이다. 기업가 정신 교육 역시 창업 의도에 자극을 주려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의 구체적이 방법을 소개하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일은 스스로의 창업 의도를 형성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또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예비 창업자로서 경험을 갖도록 하는 일도 기업가 정신 교육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에서 신입생 전체를 대

\* 주저자, 수원대학교, kimtk@office.suwon.ac.kr

· 투고일: 2019-01-10

· 수정일: 2019-02-15

· 게재확정일: 2019-02-15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정신 교육의 효과에 관한 모형을 수립하고 통계적인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왜 기업이 정신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에 관한 것으로 특히,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셀프-리더십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고려한 모형을 활용했다. 또한 창업 동아리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비교적 저학년의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기업이 정신 교육의 효과를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교육 과정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정신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배경과 가설

### 2.1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의도 형성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핵심적인 사고방법 혹은 접근법이 곧 기업가 정신이다. 이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도록 하는 구체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이 개인의 의지이며 조직을 혁신적 상태로 이끄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Stevenson, 1983; Timmons & Spinelli, 1994). 기업이 정신에 관한 고찰은 슈피터(J. Schumpeter)의 혁신 이론이 제기된 이래로 경영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 현실적으로는 벤처 창업의 원동력으로 간주된다.

한편 기업이 정신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는 기업이 정신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슈피터의 경우, 기업이 정신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보았다 (Hagedoom, 1996). Cole(1999)은 기존의 사업 영역에도 기업이 정신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혁신성, 관리 능력 그리고 외부환경과의 조정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또한, 기회 포착 관점에서 위험성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포함하는 경우나(Morris & Lewis, 1995),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념이나 철학이라는 뜻을 담은 경우도 있다 (Hisrich & Peters, 1986). 보다 행동에 초점을 두어 기업이 정신을 묘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Miller(1983)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가가 취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기업이 정신의 유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위험한 투자와 혁신적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진취성이나 위험감수 성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은 조직 내 다른 구성원에 비해 변화의 수용 정도가 높음 편이다. 즉, 오랫동안 유지된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강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Morris & Lewis, 1995). 또한 기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은 진취적이다. 적극적으로 경쟁하려고 하며 경쟁자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려고 한다. 때로는 시장 내에서 조직의

지위를 바꾸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과 투자가 뒤따른다 (Hisrich & Peters, 1986). 사업실패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회 포착을 우선시하고 실천하는 것도 기업이 정신이 높은 사업가의 특징으로 언급된다(Hagedoom, 1996). 단순히 앞을 보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독특한 역량을 갖춘다고 본다.

기업가 정신을 갖추게 하는 일은 대학 교육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다룬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의 지원 사업도 확대되는 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이 정신 함양도 경영 교육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김성환 외, 2015; 김홍, 2012; 양영석 외, 201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이 정신 교육의 핵심은 위험을 통제 가능한 기대 수준까지 낮출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능력, 즉 혁신성이다 (Rasmussen & Sorheim, 2006). 혁신성이 강한 학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다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Hisrich & Peters, 1986). 대학생의 높은 혁신성은 새로운 벤처 창업으로 이어져 기업이 정신의 실천 노력이 가시화되는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Lumpkin & Dess, 1996).

기업가 정신이 창업 의도에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Shapero(1975)나 이후 Bird(1988)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Autio et al.(2001)은 대학생 창업 교육과 연결하여 기업이 정신과 창업 의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의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의 이론적 토대는 계획적 행동 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업 이벤트 모형 (Model of Entrepreneurial Event: MEE) 등이다(Krueger Jr. & Brazeal, 1994). 어떤 행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기준이나 개인의 태도가 호의적이면, 그리고 스스로에게 인지된 통제력이 클수록 어떤 개인의 실천 의도가 더욱 강해지며, 이러한 의도는 곧 인지적으로 계획된 행동의 실행 여부를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 TPB이다. 또한 의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행위에 대한 태도 이외에 사회적 규범이나 지각된 행동 가능성을 고려한다. TPB와 마찬가지로 MEE 역시 창업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이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가 될 이벤트 혹은 사건을 전제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실직이라는 사건은 구체적인 창업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창업에 대한 태도가 실제 창업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창업 행동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대학의 교육 과정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기능과 함께, 구체적으로 창업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한다. 또한, 실제 사업계획서를 구상하고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는 활동,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활동은 창업

태도 형성을 넘어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1: 기업가 정신 교육은 대학생의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 2.2 창업에 대한 위험 인지

대학은 많은 자원과 역량을 창업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 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업을 바라보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대학생 청년 창업을 생각하든 창업이 학과와 전공을 넘어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는 추세다. 한편, 창업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은 창업이 주는 낭만과 실패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모습을 교육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기업가로서 가진 포부를 실제 행동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는 일에 방해가 된다. 이는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고, 성공의 가능성을 더욱 더 낮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기업가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수진 외, 2016). 창업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쳐도,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할인하여 인식하고, 창업가 개인이 해결해야 할 위험을 지나치게 크게 인식시키는 주된 이유가 창업에 대한 인지된 두려움이다(Van Gelderen et al., 2015). 창업가의 실패를 구체적인 사례로 접하게 되면 성공한 창업가의 이야기를 접함으로써 생겨나는 긍정적인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된다(Cacciotti & Hayton, 2015).

실패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태도는 창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일에 보다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Arenius & Minniti, 2005; Morales-Gualdrón & Roig, 2005). 그런데 기업가 정신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강한 도전 의지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vin & Slevin(1990)의 주장과 같이 사업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태도와, 위험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기업가 정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유의미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2: 기업가 정신 교육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창업 이후 실패가 예상되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는 약화된다(Mitchell & Shepherd, 2011). 건강한 생활을 저해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예상하는 창업자에게 실행 가능성에 대한 상상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다(Cacciotti & Hayton, 2015). 두려움은 기업가의 부정적 인지작용을 일으켜 성공 가능성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창업 의도를 약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칠

우려가 있다(Van Gelderen et al., 2015). 이러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3: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대학생의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 2.3 리더십과 자기 효능감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일은 창업 교육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자기 스스로가 리더십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셀프-리더십 (Self-Leadership)은 과업의 범위를 스스로 재정의하고 외부적 동기부여에 따른 과업 설정을 넘어서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설정한 과업까지 수행하려는 포괄적인 태도를 말한다(Manz, 1986). 기업가로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도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D'Intino et al., 2007). 즉,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내적 동력을 강화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다가가는 일련의 과정이 셀프-리더십의 모습인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기업가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Prussia et al., 1998), 외부에서 기업가의 자질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과 관련된다(D'Intino et al., 2007). 창업가는 스스로가 목표와 계획을 세운 뒤에 이를 실천하려는 강한 추동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Neck et al., 2013). 셀프-리더십이 강하면 기업가 정신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셀프-리더십 자체는 개인의 개성 혹은 특이한 성향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이 창업 교육과 연결되었을 때는 기업가 정신의 고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Nga & Shamuganathan, 2010). 기업가 스스로가 과업에 대한 충실한 실행력을 보인다면 기업가의 혁신적 자질을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결과를 낳는다(Neck et al., 201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4: 개인의 셀프-리더십 성향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다.**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이란 어떤 과제나 행동 지침이 주어졌을 때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개인의 믿음의 강도이다(Bandura, 1977). 행동의 변화를 이해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Gist, 1987).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시도하는 횟수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행자가 취하는 태도가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드러난다(Barling & Beattie, 1983).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운 일을 추구하려 한다(Chen et al., 1998).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창업가의 자질로 거론되기도 한다(Chandler & Jansen, 1992; Krueger Jr & Brazeal, 199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5: 개인의 자기 효능감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다.**

기업가 정신 교육 과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창업 동아리”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창업 동아리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창업 방법을 학습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창업에 있어 학교의 역할과 현업 전문가의 역할을 동시에 살핀 Rasmussen & Borch(2010)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구성원들의 약점과 강점을 서로 보완하여 체험을 통한 학습, 그리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창업 동아리의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에 기반을 둔다(Hynes, 1996). 서로 다른 전공에 소속된 학생들이 가진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고 관리하여 새로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정보 공유 그리고 소임을 다 하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창업 동아리 활동은 팀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교육과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6: 창업 동아리 활동은 셀프-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교육 및 자기 효능감과 기업가 정신 교육 사이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진다.**

### III. 실증 분석

#### 3.1 데이터

본 연구의 가설들을 실증 자료로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의 U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기업가 정신 교육 수업을 자료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U대학의 신입생 규모는 연 2,500명 내외이며 기업가 정신 교육에 관한 수업을 기본 교양으로 채택하고 있어 입학생 모두가 필수적으로 해당 수업을 완료해야 한다.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18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다. 데이터는 두 기간 모두에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되었고, 572명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응답을 완료하고 마커(Marker) 질문을 활용한 검사를 통과한 437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응답률 = 43.7%).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은 58.8%이고 남성은 41.2%였다. 모든 응답자가 2학년 이하의 학생이었으며 이공계 전공이 51.1%, 인문 사회 계열이 30.6%, 예체능 계열이 18.3%였다. U대학의 신입생의 구성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 중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의 22.4%였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77.6%였다. 창업 동아리 참여가 수업 중 권장되기는 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었다.

데이터의 구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학년이다. 비교적 저학년들이 참여하는 필수 교양 수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나, 취업만큼 창업을 중요한 사회 진출 수단으로 본다면 보다 더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업가 정신 교육의 적절한 학년 대상에 대한 논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창업에 관한 지식, 그리고 충분한 기업가 정신 고취는 대학 기간 동안 창업 기회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과 탐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3.2 분석 방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법은 구조 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의 경로 분석법(Path Analysis: PA)이다. PA를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LISREL이나 PLS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동일하다. 관측가능한 측정 변수로부터 잠재 변수(Latent Variable: LV)를 구성하거나 변동성을 반영하고, 잠재 변수들끼리 인과 경로를 표시한다. 통상적인 회귀 모형이 하나의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여러 독립 변수들이 결합된 형태인 것에 비해, PA는 종속 변수가 다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거나 여러 종속 변수가 복잡한 경로 상에 존재하는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간단 명료함을 희생하고 모형의 전체적 설명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는 기법이 SEM-PA라고 할 수 있다(Hair et al., 2011).

SEM-PA의 핵심적 검증 과정은 모형의 구조적 타당성이다. 모형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복잡성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설명력이 높아야 한다(Hsu et al., 2006). 이를 위해 모형에 사용된 잠재 변수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로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판별 타당성 역시 입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CFA를 위해서 LISREL 알고리즘을, 판별 타당성을 위해서는 평균 추출 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계산한 값을 활용했다. SEM-PA를 위해서는 Partial Least Square Path Modeling (PLS-PM) 방법을 사용했고, LV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적 권고는 Chin(1998)을 따랐다.

#### 3.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변수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신

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것들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모든 변수는 리커트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동의’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설문지 항목은 일부 역코딩을 한 다음 분석 시에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렸다. 이는 응답자가 응답 항목을 읽지 않고 관성에 따라 답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에 활용한 변수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해당 마커 질문은 “나는 ○○대학의 기업가 정신 교육에 만족한다”는 것과 “나는 ○○대학의 기업가 정신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다”였다. 두 점수 간의 차이가 2를 초과하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항목은 <표 1>과 같다.

는 주관적인 기대를 뜻한다(Mitchell & Shepherd, 2011). 또한, 자기-리더십은 창업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자기 성취를 위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려는 성향이다(Manz, 1986).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으로 능력이 현재 충분하거나 노력으로 부족한 점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다(Barling & Beattie, 1983).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 신뢰도 검사 (Cronbach's) 등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표 2>에 정리했다. 가설 검증에 사용된 모든 측정항목들은 타당

<표 1>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의 항목

잠재 변수	측정 변수의 항목	참고 문헌
기업가 정신	(inn1)나는 창의성이 뛰어나고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inn2)나는 성취를 즐기는 편이다. (inn3)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Arenius & Minniti(2005); Autio et al.(2001)
창업 의도	(int1)나는 창업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int2)나는 미래에 창업을 생각하는 편이다. (int3)나는 기회가 되면 창업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Autio et al.(2001); Bae et al.(2014)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fai1)내가 창업을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 편이다. (fai2)창업은 두려운 일이다. (fai3)내가 세운 창업 계획은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믿는다.	Bae et al.(2014); Mitchell & Shepherd(2011)
자기-리더십	(sel1)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sel2)나는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여 실천하는 편이다. (sel3)나는 스스로에게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을 주는 편이다.	D'Intino et al.(2007); Manz(1986); Neck et al.(2013)
자기 효능감	(eff1)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eff2)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eff3)노력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Barling & Beattie(1983); Chen et al.(1998); Gist(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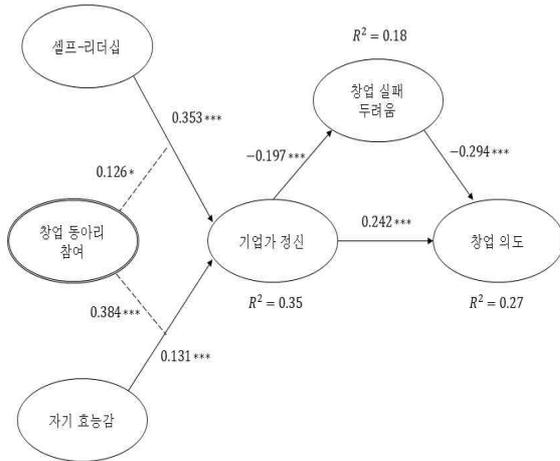
<표 2> 측정 변수 관련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변수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Alpha	DG Rho	평균	분산
기업가 정신	inn1	0.87	0.721	0.844	3.00	0.79
	inn2	0.76			2.88	0.75
	inn3	0.74			3.14	0.70
창업 의도	int1	0.87	0.893	0.934	3.17	1.65
	int2	0.78			3.32	0.78
	int3	0.76			2.97	0.85
실패 두려움	fai1	0.89	0.729	0.848	3.19	0.80
	fai2	0.77			2.91	0.76
	fai3	0.71			3.25	0.75
자기-리더십	sel1	0.91	0.781	0.873	3.02	0.84
	sel2	0.74			2.83	0.68
	sel3	0.72			3.24	0.74
자기 효능감	eff1	0.88	0.761	0.864	2.89	0.81
	eff2	0.71			2.91	0.75
	eff3	0.78			2.71	0.6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의 창의적으로 성취 지향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성향이다(Arenius & Minniti, 2005). 다음으로 창업 의도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창업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적극적인 실천하려는 의지를 말한다(Autio et al., 2001). 또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창업 시 실패할 우려가 높을 것이라

성과 신뢰성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LISREL-lavaan 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chi^2 = 2598.7$ ,  $p\text{-value} < 0.001$ ,  $RMR = 0.03$ ,  $RMSEA = 0.042$ ,  $CFI = 0.987$ ,  $TLI = 0.983$ ). 집중타당성은 일반적으로 각 측정변수와 구성 개념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치가 0.5 이상

이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모형 분석의 결과  
(p-value - \*\*\*: < 0.001, \*\*: < 0.01, \*: < 0.05)

본 연구에 사용된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비교할 때 판별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AVE의 제공근이 개념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나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표 3>을 보면 각 잠재변수들과 AVE의 제공근이 다른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모두 크다. 또한 각각의 AVE는 0.5를 초과하므로 잠재변수들의 평균 설명력도 전반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 3.4 가설 검정 결과

<표 3> 잠재 변수 간 상관관계

	셀프 리더십	자기 효능감	기업가 정신	창업실패 두려움	창업 의도
셀프 리더십	0.833	-	-	-	-
자기 효능감	0.001	0.817	-	-	-
기업가 정신	0.353***	0.131*	0.801	-	-
창업실패 두려움	-0.121*	0.051	-0.197**	0.797	-
창업 의도	0.127***	-0.047	0.301***	-0.341***	0.908

(대각선 괄호 안: AVE 제공근, p-value - \*\*\*: < 0.001, \*\*: < 0.01, \*: < 0.05)

기업가 정신 교육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기 초에 실시한 기업가 정신 관련 측정 항목과 학기 말에 측정한 항목 간 t-test를 수행하였다. <표 4>에 나타나 바와 같이 기업가 정신 교육은 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의 전후 창업 실패에 관한 두려움에 관한 통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림 1>은 구조 방정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로의 유의성을 부트 스트래핑에 의한 t값 통계량으로 판단한 결과 가설은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1은 “기업가 정신 교육은 대학생의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였다.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의도 사이의 경로 계수는 0.24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므로 가설 1은 지지된다. 조사 결과 기업가 정신 교육은 대학생의 창업 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 2는 “기업가 정신 교육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였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하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경감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가설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197의 경로 계수가 계산되었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지지된다.

<표 4> 기업가 정신 교육의 성과(학기 초, 학기 말)

변수	항목	평균 차이(절대값)	t-통계량	p-value
기업가 정신	inn1	0.812	-10.896	<0.001***
	inn2	0.680	-9.343	<0.001***
	inn3	1.001	-13.643	<0.001***
창업 실패 두려움	fai1	0.028	-0.364	0.716
	fai2	0.149	1.935	0.053
	fai3	0.064	-0.852	0.394

가설 3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대학생의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인데 -0.294의 경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가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창업 의도가 낮아졌다.

다음으로 가설 4는 “개인의 셀프-리더십 성향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셀프 리더십이 클수록 기업가 정신 교육의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353의 경로계수를 보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가설 5는 “개인의 자기 효능감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다.”이고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지지된다. 마지막으로 가설 6은 “창업 동아리 활동은 셀프-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교육 및 자기 효능감과 기업가 정신 교육 사이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진다”였다.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경우 그 효과가 0.126으로 p-값이 0.05미만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고, 자기 효능감의 경우 0.384로 p-값이 0.001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둘 모두 창업 동아리 활동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점이 드러났으므로 가설 6이 지지된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경로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창업 동아리 활동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더 크다. 이는 창업 동아리 활동이 리더십의 영향보다는 학생들 간의 상이한 능력을 상호 보완하는 측면이 보다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 소재의 4년제 대학교의 기업가 정신 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들을 수립하고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기업가 정신 교육이 전반적으로 창업 의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도 반복적으로 보고해 온 것을 재발견한 것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Bae et al., 2014; Fayolle & Gailly, 2015; Hynes, 1996; 김재형, 2018; 신혜성·안윤영, 2015; 양준환, 2014; 한정희·김정호, 2013).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연결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특징이다. 창업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의 결과나 사회적 상식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입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비교적 저학년의 대학생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관찰된 것이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의도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 관념의 영향력을 받아 고착화된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보다 다양한 연구 대상들을 기초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의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왔다면 본 연구는 보다 초점이 맞춰진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 교육 측면의 시사점이 보다 더 분명해졌다. 교양 수업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했을 경우 창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과 안전망에 관한 보다 더 확고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 초기에 실패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지 않는다면 대학생 창업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창업 동아리 운영의 효과를 측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홍효석·설병문(2013)은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창업 동아리가 창업 역량을 축적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창업 동아리가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인의 리더십 및 동아리에 참여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효능감과 기업가 정신 교육 효과에 대한 주관적 판단 사이의 영향력이라는 맥락에서 창업 동아리 운영의 의의를 살펴봐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업가 정신 교육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학술적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 교육으로서 기업가 정신 교육은 대학의 주된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창업선

도대학사업 등으로 창업 노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기업가 정신 교육을 보다 더 표준적인 방법으로 통해 수행하거나 대학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적 성격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 사태나 인구 고령화 등의 엄중한 현실을 볼 때 지식사회의 귀중한 인재로서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업가 정신 교육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 실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기업가 정신 교육의 실천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대학생의 창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은 창업 의도를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 결과가 저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창업을 했을 경우 성공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실패한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도전적이고 창의적 활동을 보다 더 진취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단순히 대학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해야 기업가 정신 교육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창업 동아리 활동은 예비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려된다. 셀프-리더십과 자기 효능감 측면에서 창업 동아리 활동이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창업 동아리 활동이 기업가 정신 교육의 도구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셀프-리더십의 경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자기 효능감 측면의 효과는 이보다 더 커 창업 동아리 운영의 효과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두고 볼 때, 창업 동아리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상호 보완적 역할 수행과 그것이 구성원들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창업가로서 동아리 내 리더-멤버 간 상호작용과 그것이 기업가 정신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상세한 연구 노력도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

- 김성환·복경수·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5-26.
- 김수진·한정희·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 김재형(2018).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73-82.
-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 신혜성·안윤영(2015).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한 외식창업교육이 기업

- 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8(2), 433-452.
- 양영석·최종인·황보윤(2012). '질 좋은창업의 개념정립과 창업교육 중심의'질 좋은창업육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7(2), 141-150.
- 양준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6), 65-77.
- 한정희·김정호(2013).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6), 2777-2797.
- 홍효석·설병문(2013).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8(2), 141-151.
-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 Autio, E., H. Keeley, R., Klofsten, M., Parker, G., & Hay, M.(2001).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in Scandinavia and in the USA, *Enterprise and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2(2), 145-160.
- Bac, T. J., Qian, S., Miao, C., & Fiet, J. O.(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17-254.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rling, J., & Beattie, R.(1983). Self-Efficacy Beliefs and Sales Performanc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ment*, 5(1), 41-51.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Cacciotti, G., & Hayton, J. C.(2015). Fear and Entrepreneurship: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7(2), 165-190.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in, W.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295(2), 295-336.
- Cole, A. H.(1999). *Business Enterprise and Its Social Setting*. iUniverse.
- Covin, J. G., & Slevin, D. P.(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D'Intino, R. S., Goldsby, M. G., Houghton, J. D., & Neck, C. P.(2007). Self-Leadership: A Process for Entrepreneurial Success,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3(4), 105-120.
- Fayolle, A., & Gailly, B.(2015).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Intention: Hysteresis and Persiste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1), 75-93.
- Gist, M. E.(1987).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3), 472-485.
- Hagedoorn, J.(1996).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Schumpeter Revisited,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5(3), 883-896.
- Hair, J. F., Ringle, C. M., & Sarstedt, M.(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 Han, J. H., & Kim, J. H.(2013). A Study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6(6), 2777-2797.
- Hisrich, R. D., & Peters, M. P.(1986). Establishing a New Business Venture Unit within a Fir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307-322.
- Hong, H. S., & Seol, B. M.(2013).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141-151.
- Hsu, S. H., Chen, W., & Hsieh, M.(2006). Robustness Testing of PLS, LISREL, EQS and ANN-Based SEM for Measuring Customer Satisfaction, *Total Quality Management & Business Excellence*, 17(3), 355-372.
- Hynes, B.(1996).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Introducing Entrepreneurship into Non-Business Discipline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0(8), 10-17.
-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 Kim, J. H.(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Fear on Busi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73-82.
- Kim, S. J., Han, J. W., & Lee, S. M.(2016).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49-61.
- Kim, S. H., Bok, K. S., & Park, J. C.(2015).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26.
- Krueger J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nz, C. C.(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itchell, J. R., & Shepherd, D. A.(2011). Afraid of Opportunity: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on Entrepreneurial Ac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1(6), 195-209.
- Morales-Gualdrón, S. T., & Roig, S.(2005). The New Venture Decision: An Analysis Based on the Gem Project Database,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4), 479-499.
- Morris, M. H., & Lewis, P. S.(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 Neck, C. P., Houghton, J. D., Sardeshmukh, S. R., Goldsby, M., & Godwin, J. L.(2013). Self-Leadership: A Cognitive Resource for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26(5), 463-480.
- Nga, J. K. H., & Shamuganathan, G.(2010).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Demographic Factors on Social Entrepreneurship Start up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5(2), 259-282.
- Prussia, G. E., Anderson, J. S., & Manz, C. C.(1998).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s: The Mediat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19(5), 523-538.
- Rasmussen, E., & Borch, O. J.(2010). University Capabilities in Facilitating Entrepreneurship: A Longitudinal Study of Spin-Off Ventures at Mid-Range Universities, *Research Policy*, 39(5), 602-612.
- Rasmussen, E. A., & Sørheim, R.(2006). Action-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echnovation*, 26(2), 185-194.
- Shapiro, A.(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6), 83-88.
- Shin, H. S., & Ahn, Y. Y.(2015). The Influence of Food Servi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erceived by Pre-Entrepreneur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8(2), 433-452.
- Stevenson, H. H.(1983). *A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School Cambridge, MA.
- Timmons, J. A., & Spinelli, S.(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Burr Ridge, IL.
- Van Gelderen, M., Kautonen, T., & Fink, M.(2015). From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 Actions: Self-Control and Action-Related Doubt, Fear, and Avers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0(5), 655-673.
- Yang, J. H.(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 Yang, Y. S., Choi, J. I., & Hwangbo, Y.(2012). A Conceptual Study for Creating 'A Good Quality Startup' by Algorithm-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2), 141-150.

#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ear to Start-up and Start-up Communities in Class

Taekyung Kim\*

## Abstract

Fear to start-up failures has been know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government adopts a policy to help university students overcome their fear of start-ups. Setting educational goals to foster innovative and progressive entrepreneurs, universities have been conduc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but it is hard to say that constructive results have been achieved so far. Rather than adopting the practice of option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re is a need to have all university freshmen mandatorily take the cours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uncover the impact of more aggress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sition in the university by analyzing empirical data.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ntrepreneurship level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tested, and start-up fear was also considered. In the research model,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were included as regressors to entrepreneurship levels. Especially, this study tested moderate effects of start-up community during the course.

The results from the sample of 2,500 freshmen indicate that entrepreneurship level is significantly improved by taking the course; however, fear to start-up failures remains still. In addition,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putting start-up communities i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helps students by moderating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This study extends our knowledg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y by analyzing university freshmen data empirically.

*Keywords: Entrepreneurship, Fear to Start-up,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

\* First Author, University of Suwon, kimtk@office.suwon.ac.kr